

『원폭의 증인』

제 12 회 가톨릭 한,일 학생 교류회(2006. 2. 23~27)에 관한 특집기사에서

구술<2006. 2. 25>: 핫토리 세츠코(마리아)<히로시마 시, 노보리마치 성당 소속>

번역<2009. 7. 20>: 김기영(안드레아) 신부<히로시마 교구, 타마노성당 주임신부>

Fr. Kim Ki Young(Andreas)<Tamano Church of Hiroshima Diocese>

히로시마에는 3 개의 얼굴, 즉, 「군도(軍都) 히로시마」, 「피폭지 히로시마」,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 년 전, 히로시마는 군사도시로 변형해서 전쟁과 함께 발달해 온 시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40%는 군사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히로시마 항에서부터 중,일전쟁 등을 위해 많은 병사들이 전장으로 보내졌고, 군사물자를 보내는 군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점령했고, 전쟁 초기에는 「이겼다!」라면서 기뻐했지만, 태평양 전쟁에 돌입해서는 거의 미군기의 공격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히로시마는 왜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상히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군사도시인 히로시마는 원폭투하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던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5 년 8 월 6 일, 미군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Enola Gay)가 히로시마 시가지에 한 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이 한 발의 폭탄은 이십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삼십 만 명이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폭심지의 온도는 3 천도, 내지는 4 천도였다고 말합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5 백도니까,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도 상상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보더라도, 50 미터의 풍속에도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폭풍으로 인해 폭심지에서 3 킬로미터 이내의 집들은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14 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고, 일손이 부족한 탓에 우리는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공부 대신 대포의 포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날, 8 월 6 일은 공장이 쉬는 날이었고, 늦은 아침식사를 마친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폭심지에서 1.7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 안에 있었던 저는 갑자기 무언가가 번쩍하고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0.3 초 정도였다고 기억합니다만, 그 0.3 초의 열선이 밖에 있던 사람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 빛이 있는 다음, 「캉」하고 격심한 굉음이 들려왔고, 집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흔들리기 시작, 저는 한 차례 「붕」하고 떠올랐다가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모래 먼지와 함께 천정의 기둥이 떨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아-, 죽는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조의 단층집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기어서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옷은 엉망으로 찢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의 파편이 몸 속에 박혀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집은 무너져 있었고, 「살려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맨발의 겐(Hadashi

no Gen)』이라는 만화를 보신 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집의 밑부분에 깔린 사람들은 그대로 화염에 휩싸여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모두가 심하게 다쳐서 누군가를 도와줄 힘도 없었고, 겨우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가까운 공원으로 피신 해 갔습니다. 다음, 또 그 다음 계속해서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보니 모두 옷이 너털너털 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꾸로 선 채 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서 피폭 때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라고 히로시마 시가 모집해서 그려진 그림들은 격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이 불에 데어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겨서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흘러내린 내장을 안고 있는 사람, 한 쪽 눈이 날아가버린 사람, 귀가 없어진 아이를 안고 「불쌍해서 어찌나, 불쌍해서 어찌나」하고 우는 어머니. 불에 데인 살갓이 결국 터져서 손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있는 곳까지 와 멈춰서, 마치 찢어진 천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크나큰 충격으로 생각할 힘조차 잃어버렸고, 무서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발이 움직이는 한 계속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불은 불을 부르고, 무너진 집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부상을 당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히로시마 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불에 타버린 별판이 되었습니다. 그 때, 새까만 중유(重油)같은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폭발 후, 수천 필드 상공까지 올라간 연기와 먼지가 구름을 모으고 비가 되어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이 도우신다」라며 크게 기뻐하면서 검은 방사선이 섞인 비로 몸을 씻었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에 젖었기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고열이 날 때처럼 몸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숙을 하는 우리 주변에서 신음소리를 내던 부상자는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어머니와 둘이서 아버지를 찾으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폭심지에서 가까운 근로 작업장에 나가계셨는데 이미 폭사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화염천지의 불타 버린 폐허를 매일같이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다리의 허벅지에 삼각매듭 같은 유리파편이 박혀있어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물, 물!」이라고 외치면서, 걷고 있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서는 「제발 물 줘 주세요!」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다」거나 「괴롭다」가 아니라 「목마르다」라고만 외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말라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모두가 힘을 합쳐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가지를 모아서 그 위에 시체를 놓고, 기름을 부어서 귀여웠던 옆 집 꼬마도, 생면부지의 사람도 태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체는 뼈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히로시마 시는 전체가 묘지라고 생각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던가?」 말하자면, 히로시마 시는 공습에 대비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건물을 부수고, 피난도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에 동원된 인원이 중학생,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가로막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군대가 부서트린 집터에 고구마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폭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덩굴을 뺀 고구마 줄기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 주간이 지나고 나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처도 입지 않고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설사를 하고, 머리털이 빠져서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사능에 의한 원자병 때문이었습니다. 원폭은 히로시마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방사능을 흩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제 친구의 아이도 원폭증으로 인한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밤중에 5분도 자게 해 주지 않았기에, 간병에 지친 엄마가 「조금은 자게 해줘」라고 무심코 꾸짖으면, 남자아이는 울면서 「병에 걸린 건 내 탓이 아냐, 본래 몸으로 돌려줘. 나는 더 살고 싶다구」라고 외치면서 6살 때 죽고 말았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소녀시절에 피폭으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슬픈 날을 지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원폭소녀라고 불리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미소여, 돌아와다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차디찬 운명/ 등에 지고/ 외로이 사네/ 소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미소여,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오니」이 분은 현재, 그 슬픔을 안고 증언하고,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며 평화의 사도로서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4년 뒤에 영세의 은총을 받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의 안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한 발의 폭탄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히로시마의 외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만 발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핵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만다는 것을, 피폭자의 입장에서, 이 땅 히로시마로부터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월 6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류는 무엇을 해왔는지.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평화는 부숴버린 것을 낮게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미움, 다툼으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고, 기도와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갈 때 평화가 이룩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폭, 용서하지 않으리』란 노래를 부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향 마을 불에 타고,
가족의 뼈 묻은 불탄 흙에
지금은 하얀 꽃 피었네
아아, 용서하지 않으리, 원폭을
세 번째도 용서하지 않으리, 원폭을
우리 마을에
이 세상 위에

P.S : 핫토리 세츠코(마리아) 님은 가톨릭 히로시마 교구, 후쿠야마 성당 소속
핫토리 다이스케(베드로) 신부님의 어머니이십니다.